

열린세상



정정웅
논설실장

50~60대 중장년층 이상 세대들은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 유쾌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훨씬 많다. 동네 어느 곳이건 놀이터가 아닌 곳이 없었고, 어떤 물건이건 놀이기구가 아닌 것이 없었다. 옆집, 혹은 옆 동네 친구가 댕건 형·동생이 댕건, 돌 이상만 모이면 즐거운 놀이에 빠져 헤어주는 줄 모르고 즐겁게 보냈던 유년시절이 생생할 것이다. 떠올릴 거리가 별로 없는 요즘은 아이들과는 확연한 대비가 난다.

당시 여름철엔 놀이도 많고, 즐거움도 컸다. 특히 요즘 같은 한여름 낮에서의 물놀이 추억은 압권이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옷을 벗고 물놀이엔 정신이 팔려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뛰놀았던 기억은 공

폭염 대책, 더 이상 머뭇거리릴 수 없다

통의 추억거리였다. 그래서 이젠 중장년이 된 당시의 아이들은 여름을 반겼고, 4 계절 중 가장 즐거운 계절로 당연히 여름을 꼽았다.

서민들의 삶 송두리째 위협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즐거웠던 옛 여름의 추억들까지 지우고 싶을 지경이다. 재앙적 폭염이 덮치면서 여름이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광주지역은 연 25일째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다. 앞서 1일엔 오후 4시30분 기준 광주 서구 풍암동 낮 최고 기온이 40.1도를 기록, 1939년 자동기상관측장비 측정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현재 광주전남재난재해대책본부가 집계한 광주지역 온열환자는 70명을 육박하고, 특히 전남지역은 이날까지 200여명의 온열환자가 발생, 노인 등 2명이 숨졌다. 지자체들이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주요 도로변에 물을 뿌려대는 등 부산을 떨어보지만 역부족이다.

말 못하는 가축들의 수난도 심각하다. 전남지역 350여 곳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56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해상에선 적조주의보가 발효돼 양식어가들이 언제 피해를 입는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히 재난수준의 피해가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폭염이 일상 생활에서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점이 더욱 걱정이다. 첫째가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올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교통사고 186만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같은 기간 교통사고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도가 높은 우리나라 폭염은 체온 유지를 어렵게 하고 수면·각성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 피로감이 상승하며 사고 위험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폭염은 일상 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비책은 극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후학자들은 기록적인 폭염이 앞으로 더욱 잦아지고 일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구 온난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터라 올해와 같은 폭염의 기세라면 일상화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정치권 차원의 폭염 대책은 그야말로 거북이걸음이다.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서 수년째 낫잠을 자고 있다.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 방침도 언제 시행될지 불확실하다. 때문에 여름이 지나고 나야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방침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란니 쓴웃음이 나온다.

자연재난 수준 대비책 필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대책은 필연이다. 지구온난화가 주범이라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온열환자가 늘어난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소할 수 있지만 도심에 숲을 조성하는 도시 숲 가꾸기 사업들이라도 즉각 시작해야 한다.

도시의 열환경 개선에 숲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가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연 재난으로 봐야 한다. 인명뿐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주거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 누진세 면제 등 실질적 지원대책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폭염 대책,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리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

기고



박성일
광주백운초등학교 교장

상상(想像)과 융합(融合)

의 형상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행위라고 한다. 이처럼 상상이란 빠라는 구체적인 실상을 두고 나머지 실체가 없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행위인 것이다. 코끼리의 상(像)자에 이미지가 결합된 것도 빠를 앞에 놓고 실체를 떠올려 보는 상상 행위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상상의 어원은 상상력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상상하려면 코끼리의 빠라는 현실적 기반 위에서 상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끼리빠가 없는 상상은 몽상이 되겠지요. 정재승 박사도 상상은 본질적으로 코끼리빠라는 과학적으로 탄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상상력은 과학적 상상력 외에 예술적, 문학적 상상력의 몫이다. 그래서 훌륭한 상상은 과학적 상상력, 예술적, 문화학적 상상력이 결합할 때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상상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융합(融合)의 의미와 연결이 되고 있다. 융합을 바라보는 의미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융합은 어떠한 문제를 생각해 내거나 해결을 할 때 하나의 과목에서 배운 내용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 과학, 수학, 예술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지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융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고대의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을 자연과학자이면서 융합적인 사고력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철학자이면서 수학자, 물리학, 역학에 관한 기초적인 학문의 틀을 형성했다. 이런 현상은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과학자로 유명한 뉴턴도 철학과 신학에서 유명한 저서를 남겼다.

데카르트도 우리는 흔히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물리학에서도 많은 공헌을 했다. 뉴턴이나 데카르트에게는 과학을 탐구하는데 철학이 기초가 되었다. 철학을 통해서 사유와 앎을 추구했고, 그 앎에 대한 탐구는 과학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보았다.

결국,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현상의 이해는 융합적인 사고들에서 자유로운 상상과 과학적 탐구 정신이 합쳐져서 통합적으로 이해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코끼리의 빠를 보고 온전한 코끼리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 수학적 사고, 예술적 감성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융합적 상상력이 결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미래의 세상은 인류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미래의 세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상상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의 발현은 학생들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의 소중한 자선이 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 등은 어렸을 때의 자신의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서 결국 시대를 앞서가는 놀라운 창조물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어렸을 때의 상상력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상력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증거이다.

결국,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융합적 사고와 결합하여 놀라운 결과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고



박현희
서구보건소장

찜통 더위 속 건강한 여름나기

치를 받고 있는 질환자, 장애인, 독거인·노숙인 등이 더 위험하다.

체온 조절을 위해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는데 노인은 땀샘이 감소돼 땀을 통한 체온조절이 원활하지 못해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성질환 자체가 외부온도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저해시키거나 복용하는 약이 체온 조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환자들은 체온이 상승하면 이를 조절하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혈압 변동의 폭이 커지면서 급격한 혈압의 변화를 초래하고 혈관에 무리를 주게 되므로 심장·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폭염에 취약하다.

당뇨병 환자는 무더위에 노출되면 탈수가 되면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혈당 조절 기능 자체가 저하돼 고혈당 증상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심장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탈수로 인해 혈액이 농축되면 심혈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폭염 기간에 영국의 런던에서 뇌혈관 및 관상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열로 인한 염증 발생과 혈액 응고 때문일 수 있다. 또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손실되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혈전이 생기기 쉽다.

그렇다면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다음 세 가지를 꼭 지킬 것을 권유한다.

첫 번째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다. 더위로 인해 땀을 많이 분비하여 체내의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질 경우 열탈진을 일으킬 수 있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스포츠음료·과일주스 등을 마시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는 탈수를 가속시키므로 삼가야 한다.

두 번째, 적절한 체온 조절을 위해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헐렁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활동 시 야외에서 시행하는 작업을 피해야 한다.

한동안 더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다시 한 번 당부 하고 싶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휴식은 충분히 해야 함을 잊지 말자.

사설

결국 중단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용역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외 부용역이 결국 전면 중단됐다. 광주시가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용역 조사를 재개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공론조사가 이용안 16년동안 논란과 갈등 속에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온 터라 걱정이 앞선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근 7개 용역사업에 참여한 업체 18곳에 용역 일시중단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2호선 일부 공사 구간과 차량기지 시설설계 등 모든 용역이 중단됐다. 시민단체의 '선 공론조사, 후 행정 절차'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이들 용역은 이르면 연말 안에 재개된다 한다. 하지만 시민모임이 제안한 시민대표 속의조사 방식은 길어질 경우 5~6개월이 소요된다. 더욱

이 시민대표 선정 안심번호 제공에 대해 선관위가 '불가' 통보를 해온 상황이다. 자칫 공론화 위원의 대표성과 신뢰성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렇지만 또다시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커지고 합의의 여의가 없을지 예단이 쉽지 않다. 이 시장 언급처럼 연말 안에 용역이 재개되면 다행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이자부담 등 부수적 문제도 우려된다. 우리는 누누이 시민들의 피로도가 극심한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또다시 공론화라는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대해 착잡함이 앞선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시민들의 여론을 거슬러선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무적인 장성군 여성 간부공무원 증가

장성군 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가 여성이며 6급이상 간부 공무원 중 40% 가까이가 여성이라 한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산 분위기에 장성군이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말 현재 장성군 전체 공무원 566명 중 여성 비율은 45.9%인 260명에 달했다. 이는 행안부의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집계 중 전남지역 여성공무원 비율 34.9%를 11%나 상회한다. 특히 전국 여성공무원 비율 36.4%보다 10% 가까이 높다. 여풍당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성군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38.7%이다. 2013년 22.63%였던 6급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의 두배에 가깝다. 무엇보다 2014년 28.57%, 2015년 33.65%, 2016년 34.43%,

2017년 37.21%, 올해 38.7% 등 매년 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여성간부 비율 38.7%는 전남 평균보다 9.66%, 전국 평균보다 8.76%포인트 높다.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역시 17.1%로 나타났다. 전남이나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장성군이 주요 부서에 과감하게 여성 공무원을 배치한 결과로 평가한다.

올해 광주·전남도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보듯 여성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부 여성 공무원 비율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들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간부공무원 확대 등 장성군의 남녀평등 인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독자광장 속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최근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출근길 '속취운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음주 후 다음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속취운전'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 직후 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요즘같이 열대야에 밤늦게까지 과음 후 숙면하지 못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는 일명 '속취운전'의 위험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지만 속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이다.

또한 속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돌발 상황에 따른 판단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사람마다 주량, 체질 등이 다르지만 소주1병을 기준으로 완전히 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이 지나거나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했을 때라고 한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써 음주운전 만큼이나 속취운전도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아침까지 숙취가 남아 있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 홍 곡성경찰서 읍내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사장·발행·편집인 金善勇 상무이사겸편집국장 李斗憲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논설실 (062) 720-1032 정치부 (062) 720-1060-62 경제부 (062) 720-1066-67 사회부 (062) 720-1050-54 사회2부 (062) 720-1056 문화부 (062) 720-1071-72 체육부 (062) 720-1043	사 진 부 (062) 720-1040 전 신 팀 (062) 720-1033 관 리 국 (062) 720-1012 판 매 국 (062) 720-1098 사 업 국 (062) 720-1011 광 고 국 (062) 720-1016-17 월 간 국 (062) 720-1006-07	기사제보 • TEL (062) 720-1050-54 • FAX (062) 720-1080-82 •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 E-mail jnmi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신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처 다원인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39 ▲ 미아·가출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39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22 ▲ 인공알코올 상담센터 23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전남대병원 220-6900 ▲ 조선대병원 220-3114